

오피니언

다산포럼

오세정



지난 13일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서남표 MIT 석좌교수의 제 13대 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서남표 신임총장은 이미 미국에서 학문적으로나 학교행정 면에서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학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KAIST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가 크다.

KAIST 총장선임 이대론 안된다

(한국과학기술원)

서남표 총장에게 주어진 숙제가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가장 크고 중요한 숙제는 4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KAIST를 국제적으로 수월성을 인정받는 이공계 교육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숙제에 도전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중도하차의 원인에 대하여 혹자(或者)는 러프린 총장의 독선적인 스타일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과거 러리다임에 안주하는 교수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소위 '러프린의 KAIST 개혁'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KAIST 구성원과 기관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중도하차의 원인에 대하여 혹자(或者)는 러프린 총장의 독선적인 스타일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과거 러리다임에 안주하는 교수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소위 '러프린의 KAIST 개혁'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KAIST 구성원과 기관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원대한 포부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KAIST 구성원 전체의 힘을 모아 끌고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KAIST는 얻은 것

물론 대학의 순혈주의(純血主義)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허덕'을 영입하여 한국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

를 표시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외국 선진대학은 최선의 총장후보자를 선임하기위해 총장선임위원회(search committee)를 구성하여 몇 달 혹은 몇 해를 넘기면서까지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을 철저히 점검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KAIST는 2년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였다.

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그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인사가 대부분의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선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와 청와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인사를 책임져야하는 사람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러프린 총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과 청와대에서 주도했지만, 형식적으로는 KAIST 이사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그 실패가 실패한 뒤에 실질적인 주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형식적인 집행자는 책임을 질 의도나 그 과정을 제대로 하려는 의욕마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인사 무책임제'는 앞으로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디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기아차 노조 지금이 파업할 땐가

기아자동차 노조가 18~20일 광주공장, 경기도 화성, 소하리공장 순으로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기아차 노조는 월 임금 10만6천221원 인상 및 성과급 3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9차례에 걸쳐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아차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91년 이후 16년 연속 파업이다. 이 파업은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시장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현대·기아그룹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아차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시에서는 기아차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치다.

적정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과연 기아차 노조가 현재의 위기 국면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의문이다. 석 달 가까운 정몽구 회장의 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으로 회사는 비상국면이다. 환율과 고유가 등으로 경영 환경도 최악이다. 올 상반기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더욱이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은 중국업체의 진출이 거세지고, 기존 업체는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시장도 날로 늘어나는 수입차 물결을 피부로 느낄 정도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10만 원을 더 받겠다고 파업을 한다니 기아차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시민들은 기아차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타사의 불공정 거래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관공으로 감사안였다. 이는 기아차가 이제 노사만의 기업이 아니라 지역기업, 나아가 국민기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제 몇만 쟁기려다 '대량실업'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연례행사가 된 파업의 사슬을 끊지 않는다면 노조의 고립과 노사의 공멸을 부를 뿐이다.

재난방지시스템 국가차원에서 재정비하라

지난 주말과 연휴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 폭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가의 기간 교통망인 고속도로를 비롯 주요 간선도로가 산사태 등으로 마비됐고 곳곳에서 돌이 무너져 주민 수만명이 긴급대피해야 했다.

토사와 낙석에 초토화 된 것은 '썩게, 빨리빨리' 만들려는 우리 사회의 풍토 때문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방지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자치단체장들이 재난관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경험이 너무 부족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단체장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꼬집었다.

시간당 최대 90mm의 '물 폭탄'이 쏟아져내린 이번 피해는 국가 재난사태라 할 수 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17일 일부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광주와 전남도 안전지대일 수는 없다.

이런 방재시스템과 의식으로는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다. 자연재해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 등으로 갈수록 빈발하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물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연평균 1조3천억원에 달했다. 교통사고 피해액의 5배, 화재 피해액의 12배 수준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지만 노력에 따라서는 최소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의 방재의식이나 재난방지 시스템은 아직 허술하다. 태풍이나 홍수 피해 때마다 인재(人災)나 관재(官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방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도 하루빨리 국가 차원에서 재난방지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철저한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안양천 특유실사태와 관련, '분명한 인재'라는 지적과 함께 영동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모두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골키퍼 부폰, 칸나바로, 챔보로타, 카모라네시, 비에라, 네드베트, 튀링, 트레제게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이 때문에 유럽 축구시장에 거대한 이적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無等鼓

이탈리아 축구계가 월드컵 우승의 흥분이 제 가라앉기도 전에 승부조작 스캔들로 충격에 빠져 있다. 스캔들은 유벤투스의 전 회장인 루치아노 모기가 심판위원장에 일부 경기에 특정 심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한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24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이탈리아 스포츠재판소는 지난 15일 결국 연구단 중 AC밀란은 제외하고 유벤투스를 비롯 3개 구단을 1부리그인 세리에A에서 2부리그인 세리에B로 강등시켰다.

도 자신이 소유한 AC밀란의 인기에 힘입어 수상에 올랐다. 그러나 승부조작 혐의의 한 중심에 있는 유벤투스는 세리에A에서 쫓겨남으로써 무려 3천600여명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1897년 학생들에 의해 창설된 이후 109년동안 세리에A를 벗어난 적이 없는 명문 클럽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 세계 5위를 기록했지만 스타급을

세기의 대세일



'세리에A가 세계 최고의 프리리그'라는 이탈리아인들의 자존심을 하늘을 찌른다. 잉글랜드가 아무리 축구중가라도 주장해도 축구계의 발생지는 이탈리아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뺨대신 축구를 원한다"는 광적인 일반인들은 물론 정치인, 재벌, 마피아까지 이탈리아에서 축구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무솔리니도 1930년 당시 축구를 활용, 대중적 인기를 구가했고 90년대 미디어 재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를 두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세기의 대세일(sale of the century)'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문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박지성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 무한경쟁에서 당당히 실력을 살아남길 기원해 본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기고

최상환



글을 왜 써야 하나? 글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아닌데, 1만명 이상의 문학인이 글을 쓰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록 글이 기준치에 못미칠지라도 문학인의 배출은 사회 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누가 읽어주건 말건 차후 문제다. 바쁜 세상이라 독자가 점점 줄어드니 어쩔 수 없다. 글을 써 받아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니 써야 한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글은 뒷전으로 밀리니 어쩔 수 없다. 옛날이야 글 쓰는 사람을 선비라고 하며 웅숭한 대접도 받으면서 관직에도 나가는 지름길이었다. 요즘은 별로

있는 글을 쓸 때 대접을 받는다. 문학은 순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이다. 몇 년 전에 찢자를 밟아 등단한 중견작가라고 자처하며, 이곳저곳 문학 동네를 기웃거리면서 자기 자랑에 몰두하는 사람은, 문학인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정치는 예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정치색이 농후한 소수의 문학인은 반성하여야 한다. 글로 승부를 거는 문학인이 가득할 때 문학 동네는 꽃을 피운다. 문학인은 예술을 창조하는 선비다. 고뇌의 창작을 하는 고고한 선비다. 그에게는 권력도 재력도 없다. 오직 평온한 마음으로 창작에 몰두하는 심정뿐이

문학인의 기본자세

대접이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문학인이여! 마음을 비우고 좋은 글을 많이 써서 메달만 가는 사회를 정화하자고 감히 제의한다. 혼돈된 사회에서 선비정신을 가진 문학인은 정신이 깨끗하다. 따라서 문학인은 좋은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야 하며, 좋은 글로 우열이 판정된다. 문학단체에서 직책은 그리 중요치 않다. 자기PR 시대라고 하면서 명함을 각종 직책을 뺏겨서 등재하여 돌리고, 출판기념회도 호화판으로 열면서 자기 알리기에 열을 올린 문학인이 가끔 있다. 있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타할 바는 아니고 칭찬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방법이 있다. 자기 신분과 격에 맞추어서 실행해야 한다. 정도가 지나치면 비롯없다. 문학인은 진실한 인간성과 순수성이

다. 오직 독자가 많아 자기를 알리기만 하면 만족한다. 문학 동네에서 패거리나 조성하고 기세등등한 문학인은 가고, 화합을 하면서 문학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좋은 글을 쓰자는 문학동네 모임이 되어야 하겠다. 전업 작가 소수를 제외하고는 글을 써서 생활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문학단체도 회원이 낸 회비로 거의 운영된다. 문학인을 옹호하고 문학단체를 육성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길이니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바랄뿐이다. 비록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문학인이지만, 마음을 비우고 문학인의 기본 자세에 충실하자고 부르짖어 본다. <호남시조문학회 감사>

외국인 노동자 위한 진료체계 적극 홍보해야

순천에서 시설농사를 짓고 있는 오펜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건강 보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몸이 아파도 변변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진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모두가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면 비싼 병원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병원비 많이 나올 줄 알고 아픔을 참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들이 이같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 보험 문제를 비롯, 진료 대책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송양빈·목포시 온글동>



코리텔 면양의 실수



동물원의 동물 소개 안내판을 챙겨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당수가 흘러 지나치기 일쑤고, 동물원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종류만 20가지가 넘는 양들의 종류가 어느 종에 속하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는 사람도 드물다. 이름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코리텔 면양은 암수 모두 뿔이 없다. 털은 곧실거리면서 촘촘하고 치밀하다. 지난해 태어난 것들 중 일부는 울해 뿔이 자랐는데, 자세히보니 얼굴과 다리 주변 털은 아예 없었다. 또 뿔도 유난히 굵어진 것 같아 보였다. 면양은 면양인데 '라이거'나 '노새'

처럼 이중 혼혈인 셈이다. 양을 동물원에 들여온 뒤 같은 양 계열이라며 아픈 '무플른' 수컷과 짝만 섞어 놓았던 것이 이같은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 양들의 정력을 너무 얕잡아 본 탓도 있었다. 태어날 때는 어미인 코리텔 면양과 비슷하더니 커가는 모습이 어비인 '무플른' 관박이다. 이 녀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있었으면...

최근 가족들과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지진 체험관이란 곳에 들렀는데,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는다고 했다. 체험관에서는 화재·태풍·지진 등의 재해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다. 어둡고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출구를 찾고, 시속 30m의 바람을 직접 느껴보고, 세트장 속에서 진도 7의 지진 상황을 느끼며 실제로 대피 연습을 할 수 있다.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우리나라처럼 잠깐 설명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도록 했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멀티비전에서 불이 나는 영상이 나오면 그곳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것이다. 직접 해보면 짧은 시간안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어른들도 많이 없었다. 실습이 중요하다니 말을 실감했다. 자연 재해가 빈번한 나라인 탓에 준비가 철저한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그들이 부러웠다. 우리 나라도 이같은 지진체험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어릴때부터 안전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 <황미경·목포시 수강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